

Deloitte Insights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생성형AI 업무 활용 현황과 시사점

Deloitte Global

June 2024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리더메시지	03
들어가며	04
1. 학생들과 기업 직원들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생성형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05
2. 개발도상국이 생성형AI 활용을 선도하고 있다	06
3.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매주 약 110억 시간이 생성형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08
4. 생성형AI 활용으로 매주 1일 가량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08
5. 생성형AI는 업무 및 학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10
6. 약 75%의 기업들은 생성형AI 도입 및 활용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	10
기업들의 고위경영진은 생성형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입해야 한다	
생성형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전략	11
부록: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표본 분포	12

리더메시지



조명수 파트너

디지털 경영관리 서비스 리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직장인과 학생들은 업무와 학습에 생성형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생성형AI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우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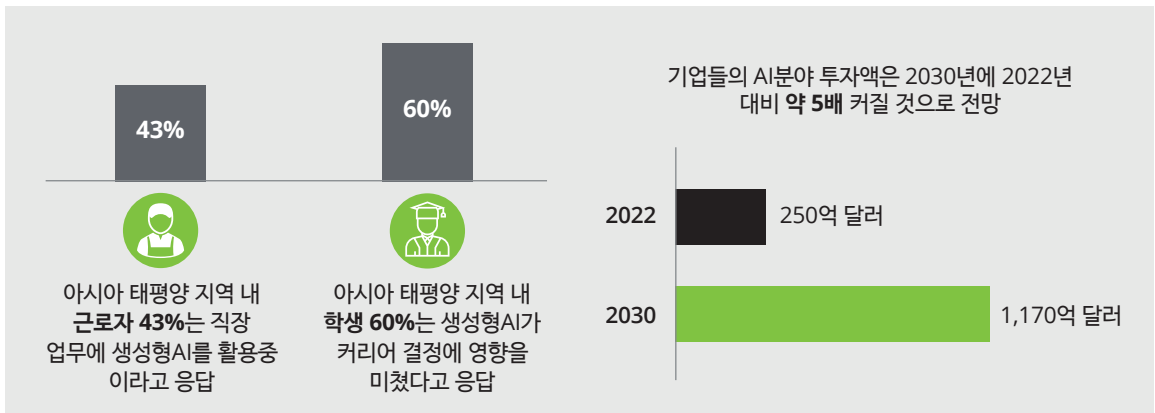


들어가며

생성형AI는 모든 산업과 모든 지역의 최고 경영진들의 화두이다. ChatGPT와 생성형AI 응용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대중화 되면서 그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생성형AI를 일상에 활용/도입하는 현상은 사용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특히 'AI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AI 세대'는 스마트 기기, 음성 비서, 추천 알고리즘 등을 비롯한 AI 기술 및 기기와 함께 성장한 24세 이하의 학생들과 젊은 성인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엔터테인먼트, 교육, 건강 관리 및 일상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대는 AI 기술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Deloitte AI Institute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AI 세대의 등장으로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는 매우 신속하고 중대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생성형AI 활용 현황과 영향



이미 생성형AI는 근로, 학습, 경제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데...



근로

- 생성형AI 활용으로 일주일에 약 6.3시간의 근로시간 감축
- 젊은 층 근로자가 중장년층 근로자에 비해 약 2배 더 생성형AI를 활용



학습

- 학생들은 근로자에 비해 약 30% 더 생성형AI를 활용
- 대학생 80%는 생성형AI를 학습에 활용



경제

-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매주 110억 시간이 AI에 영향을 받을 전망 (전체 근로 시간의 약 16%)
- 약 5조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이 생성형AI에 의해 큰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출처: Deloitte (2024), Generative AI in Asia Pacif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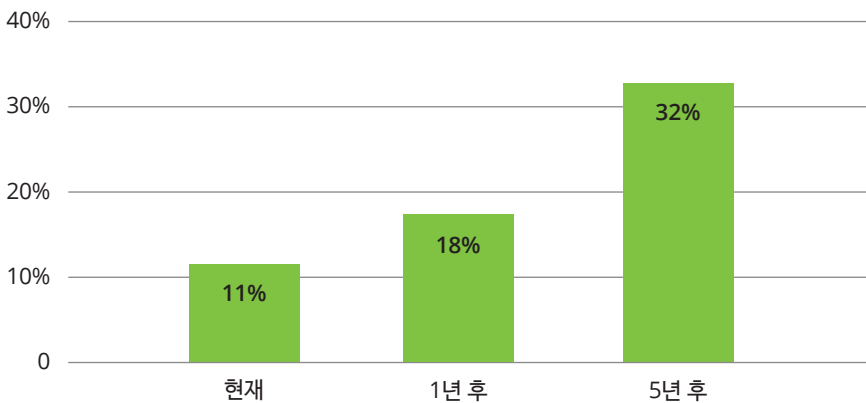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 연구는 약 11,900여 명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약 9,000명은 근로자이고 약 2,900명은 학생이다.

1. 학생들과 기업 직원들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생성형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적으로 대학생과 기업 직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비율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딜로이트 조사 결과, 대학생 81%와 직원 62%가 생성형AI를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첨단 기술과 함께 성장한 'AI 세대'는 이미 생성형AI 툴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18세 ~ 24세의 젊은 층 직원은 중/장년층 직원과 비교했을 때 생성형AI를 사용할 확률이 거의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나이와 초기 디지털 기술에 대한 노출이 생성형AI 활용의 주요 동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딜로이트의 연구 보고서 'Generation AI: Ready or not, here we come!(2023)'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호주의 직장에서 생성형AI를 활용하는 직원은 32%에서 38%로 증가했다. 생성형AI의 활용도는 앞으로도 급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AI는 IT 부서나 계획된 전략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또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새로운 생성형AI 사용자들이 다양한 툴을 실험해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와 함께, 생성형AI를 '매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비율은 현재 11%에서 5년 후 약 3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2 참조).

그림 2. 매일 생성형AI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자 비율



출처: Deloitte (2024), Generative AI in Asia Pacif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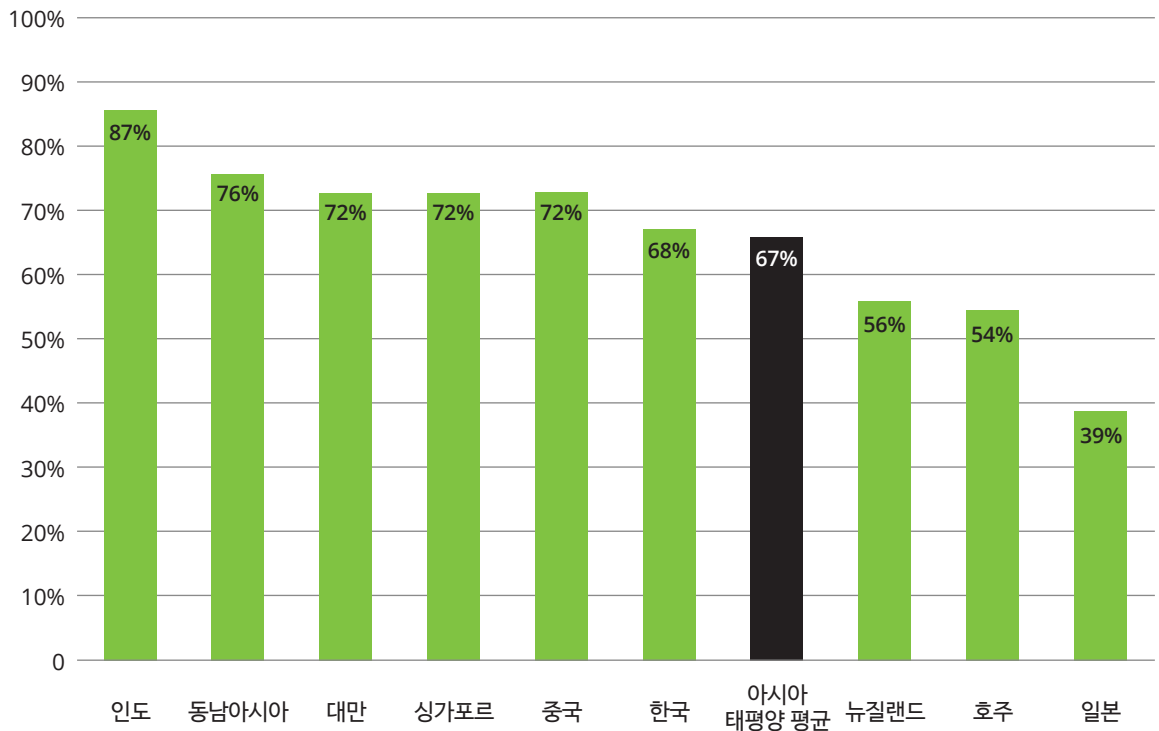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적으로 생성형AI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 기업들은 직원들을 위해 기술 공급업체나 맞춤형 플랫폼에서 개발한 안전한 응용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직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생성형AI 툴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개발도상국이 생성형 AI 활용을 선도하고 있다

과거의 기술 혁명에서는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기술을 채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00년에 한국, 뉴질랜드 및 호주 인구의 절반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중국, 인도 및 필리핀은 2% 미만의 인구만이 인터넷을 활용했었다. 또 다른 예로는 클라우드 기술 채택이 있다. 2000년대 중반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술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약 10년 뒤에 기술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생성형 AI의 시대에, 이러한 과거 패턴은 완전히 반대로 전환됐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 학생과 직원들이 선진국 학생 및 직원들보다 생성형 AI 기술을 더 빠르게 도입/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아시아 태평양 국가 및 지역별 생성형 AI 사용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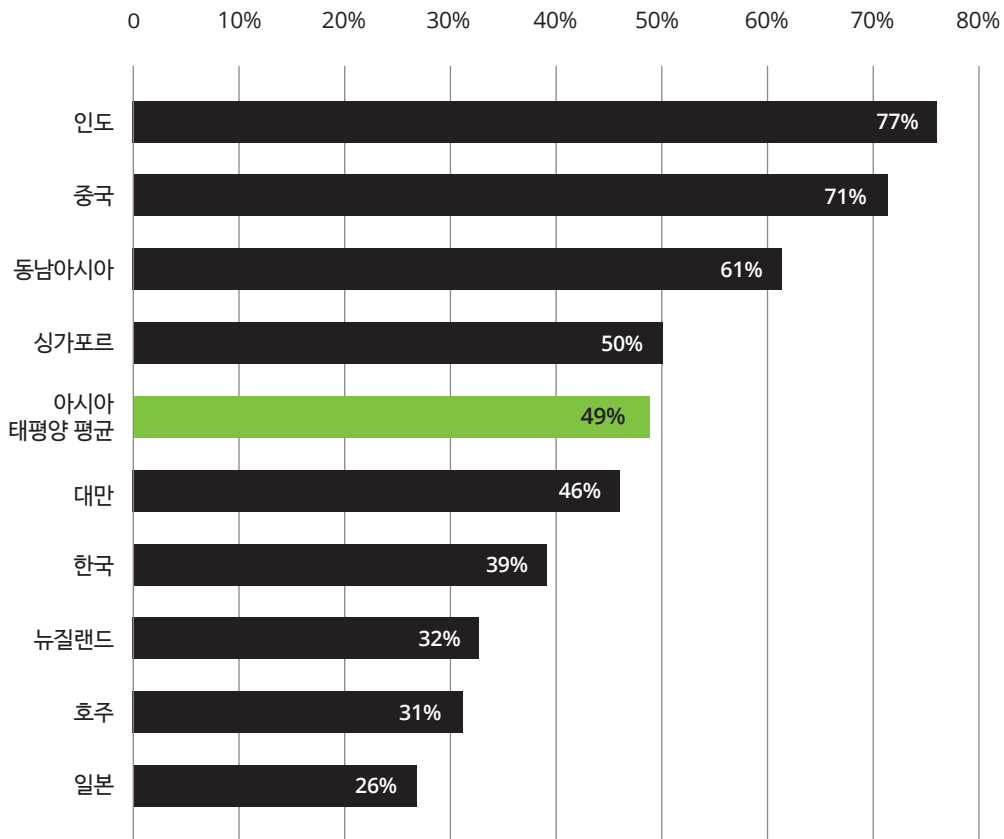


출처: Deloitte (2024), Generative AI in Asia Pacific

이러한 채택 격차는 개발도상국이 총 인구 대비 '디지털 네이티브' 인구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도 응답자 중 거의 절반(46%)은 18 ~ 35세 사이였으며, 이에 비해 일본 응답자 중 이 연령대는 30%에 불과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직원들이 생성형시에 대해 더 열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개발도상국 직원들의 절반 이상(53%)이 생성형시 기술에 큰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선진국 학생과 직원은 1/4 미만(23%)의 응답자만이 생성형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선진국 직원의 1/3 이상(36%)이 생성형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응답자 비율이 12%에 불과했다. 생성형시의 등장에 '적극 대응(생성형시 개념 연구, 프로그래밍 기술 학습, 생성형시 관련 공식적 공부 등)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인도와 중국이 가장 높았고 일본이 가장 낮았다(그림4 참조).

그림 4. 생성형시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학생/직원들의 비율



출처: Deloitte (2024), Generative AI in Asia Pacific

개발도상국이 생성형시 도입 및 활용에 있어 선진국 보다 앞서가는 현상으로 인해, 전통적인 국가별 '기술 계급' 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생성형시 도입 측면에서 앞서가면서 더 이상 노동 비용 절감을 위한 기지가 아닌,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인간 역량 개발 분야의 선도국이 될 수 있다.

물론 생성형시 도입 비율이 높은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디지털 인프라, 규제 환경, 고숙련 인력 등의 요인도 생성형시의 전반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alesforce가 측정한 '아시아 태평양 인공지능 준비도 지수'는 싱가포르(100점 중 70.1점)와 일본(59.8), 중국(59.7), 한국(59.2), 호주(58.2), 뉴질랜드(54.6), 인도(49.8) 및 동남아시아(평균 40.5) 순으로 나타났다.

3.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매주 약 110억 시간이 생성형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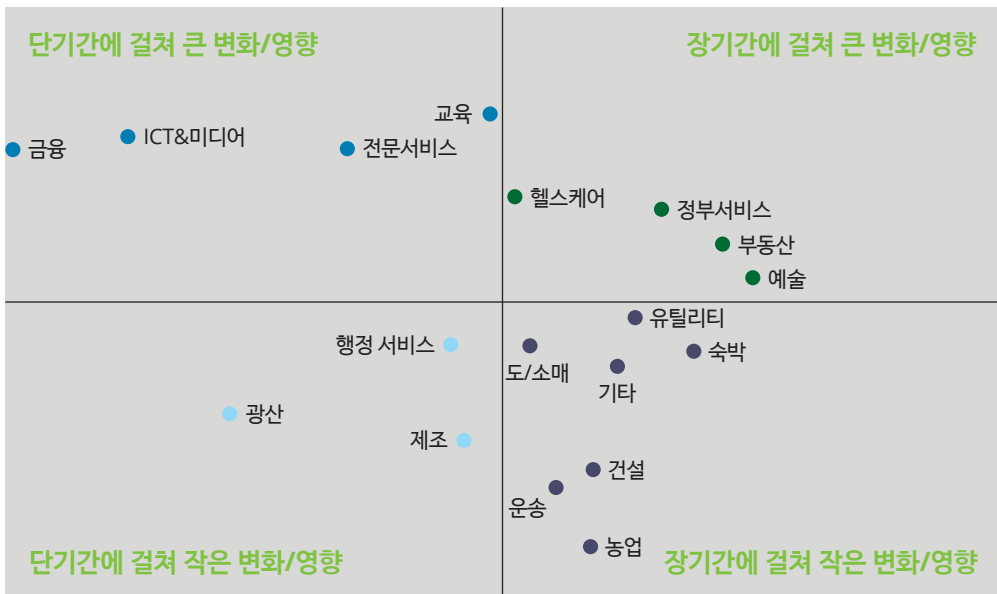
앞선 챕터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이 생성형AI 도입/활용을 선도하고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시장과 산업이 생성형AI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태평양 전체 지역에서 생성형AI가 매주 약 110억 시간에 이르는 근로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근로 시간의 약 16%를 차지하는 매우 긴 근로시간이다.

이 영향은 생성형AI가 일부 작업을 자동화하여 근로자의 노동과 참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만들거나, 근로자가 AI를 활용하여 작업을 보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이 변화가 일상적인 업무에서 중요한 변화에 직면해 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 생성형AI가 어떻게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직원들은 향후 5년간 생성형AI 기술이 현재 업무의 61% 가량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다양한 파괴적 기술의 등장 및 보급과 마찬가지로 생성형AI는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것이다.

딜로이트는 18개 산업을 2가지 기준에 의거해 분류했다. 첫번째는 생성형AI로 받는 '영향의 수준(정도)'이 큰지 다소 작은 편인지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다른 하나의 기준은 '얼마나 빨리(how soon)' 생성형AI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 두가지 기준으로 18개 산업을 아래와 같이 분류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산업별로 얼마나 빨리/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출처: Deloitte (2024), Generative AI in Asia Pacific

단기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4개 산업은 금융, 정보 통신 기술(ICT) 및 미디어, 전문 서비스 및 교육 분야이다. 이 산업들의 중요성은 각 국가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1/5을 차지한다. 이 비중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요성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반대로 농업, 건설, 교통 및 도매 및 소매업과 같이 수작업 업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작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생성형AI를 활용해 혁신을 주도할 것인가? 생성형AI의 세계에서 어떤 기업이 성공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기존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혁신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시스템에 제약을 덜 받기 때문이다. 오픈 소스 커뮤니티 덕분에 생성형AI 활용이 더 민주화 되어감에 따라,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기업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더 큰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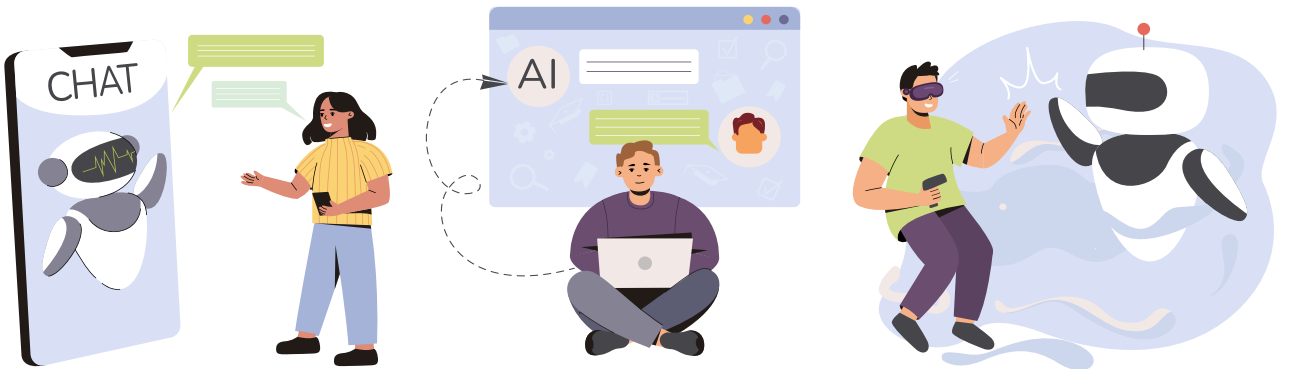
4. 생성형시 활용으로 매주 1일 가량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생성형시를 활용하는 학생/근로자들은 자신의 업무 및 학습 성과가 향상된다고 느끼고 있다.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성형시 사용자의 약 80%가 그들의 작업 속도가 향상되었고 작업 소요 시간도 크게 절감됐다고 응답했다. 평균적으로 주당 약 6.3시간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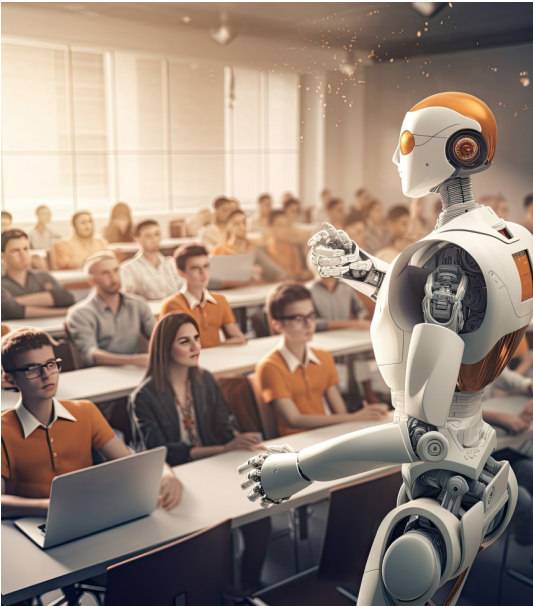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한 연구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네 곳 (호주, 인도, 일본, 싱가포르)에서 조사한 응답자의 85%가, 시가 작업을 더 빠르게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제조 및 금융 부문의 AI 사용자의 약 80%가 시가 업무 성과를 향상시켰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근로자/학생들은 절감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생성형시를 사용하여 절감한 시간은 근로자들이 다른 작업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사용된다. 근로자의 54%가 절감된 시간을 다른 작업을 완료하는 데 사용했으며, 45%는 추가적인 학습 또는 기술 개발에 시간을 투자했다. 뿐만 아니라, 생성형시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딜로이트 연구에서 도출된 생성형시의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생성형시 사용자의 71%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 2 사용자의 67%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 3 사용자의 73%가 생성형시가 업무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켰다고 답했다.
- 4 사용자의 65%가 생성형시가 결과물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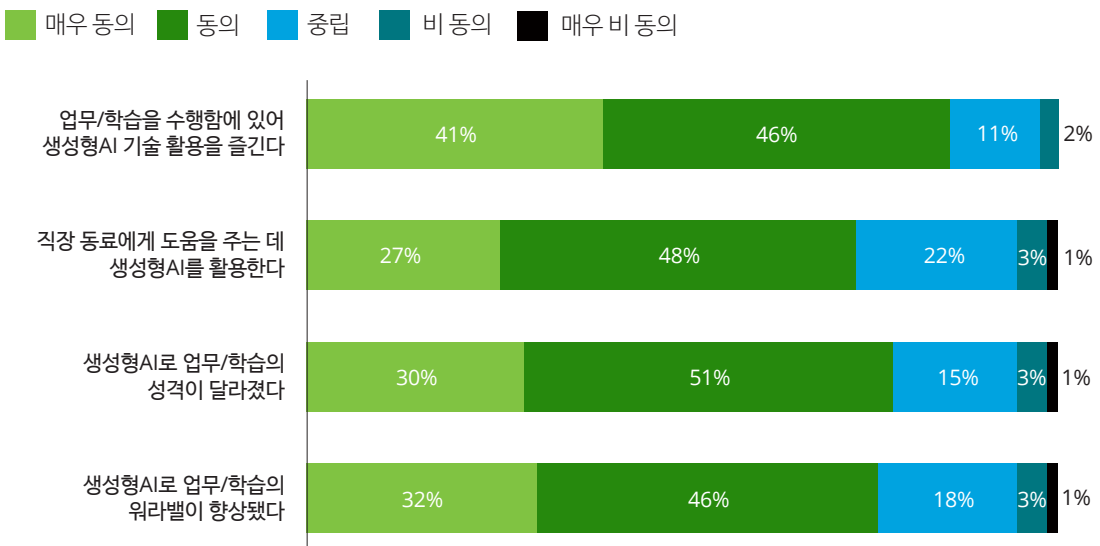


5. 생성형AI는 업무 및 학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근로자들의 약 50%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친 채로 하루 업무를 마감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호주의 경우,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근로자의 결근으로 발생하는 손실 추정비용이 연간 약 136억 달러에 이른다. 생성형AI는 근로자/학생들이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완료하고 더 중요하고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가치 있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직원의 육체적 피로를 줄일 수 있다. 생성형AI 활용으로 시간을 절약한 근로자의 78%는 이 잉여시간이 자신의 워라벨을 개선시켰다고 답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와 같은 곳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업무나 학습의 성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생성형AI 사용자들은 자신의 업무나 공부의 성격이 개선됐다고 믿었다(81%) (그림 6 참조).

그림 6. 생성형AI활용으로 인한 업무/학습 만족도 개선 효과



출처: Deloitte (2024), Generative AI in Asia Pacif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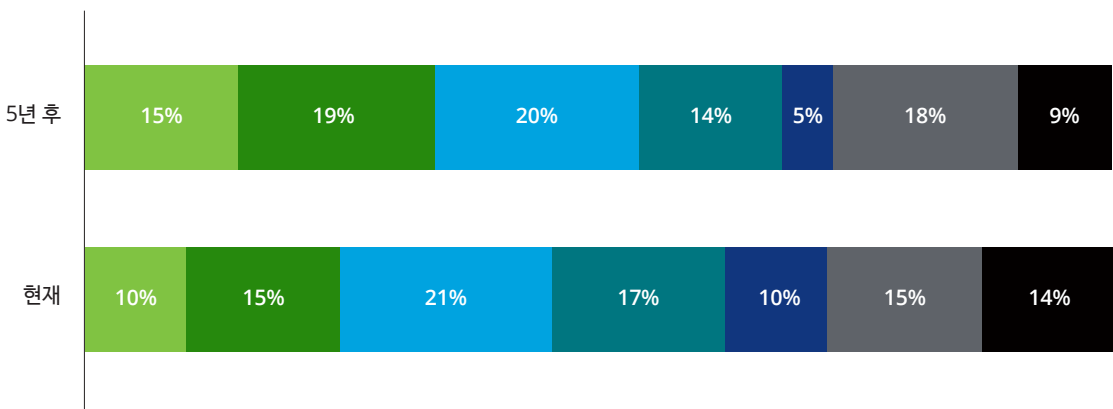
6. 약 75%의 기업들은 생성형AI 도입 및 활용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젊은 층 근로자가 주를 이룬 '생성형AI 세대'는 생성형 AI를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도입, 채택하고 있는 반면, 기업 경영진들은 생성형AI를 따라잡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통틀어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생성형AI 도입을 실험하고 있다.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IDC)에 따르면, AI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22년 ChatGPT가 처음 등장한 때의 25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1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8년 동안 거의 5배 증가하는 규모이다. 생성형AI 투자 성장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등이다. 생성형AI 투자와 도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생성형AI의 확산 및 발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자신의 직장을 생성형AI 활용 성숙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요청했을 때, 직원의 25%만이 자신의 기업을 혁신자 또는 초기 수용자 간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기업 75%는 생성형AI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5년 안에 혁신자 또는 초기수용자로 간주될 기업의 비율은 3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자신이 속한 기업의 생성형AI 도입 수준(성숙도)

■ 혁신자
 ■ 초기수용자
 ■ 초/중기 수용자
 ■ 후기 수용자
 ■ 후기 수용자
 ■ 낙오자
 ■ 내 직장과의 관련없음



출처: Deloitte (2024), Generative AI in Asia Pacific

기업들의 고위경영진은 생성형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입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기업 직원의 43%가 업무 목적으로 생성형AI를 사용하는 반면, 직원의 29%는 직장 내에서 생성형AI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기업의 조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생성형AI 도입에 관한 실제적 행동이 부족하거나 고위 경영진과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생성형AI의 등장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 직원 중 22%가 생성형AI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AI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생성형AI를 금지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오히려 생성형AI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생성형AI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76%가 이를 사용했는데, 이는 생성형AI 사용 금지 조치의 역효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생성형AI 활용을 촉진하는 기업도 있다. 생성형AI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이 취한 가장 인기있는 조치는 직원들과의 대화(42%의 직원이 이 조치를 인식), 현장 학습 장려(39%), 기술의 한계에 대한 논의(35%) 등이었다. 생성형AI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은 단 33%에 불과했는데, 이는 아직까지 생성형AI 활용에 대한 촉진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기업의 고위 경영진들은 생성형AI의 등장과 확산이 거스를 수 없는 현상임을 인정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생성형시 도입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전략

1 기업의 핵심 가치 영역에 중점을 둔 생성형시 전략 개발 및 실행

생성형시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업 리더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본질적 핵심가치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생성형시 활용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나, 어떤 활용 사례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다른 일부 사례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비즈니스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 리더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AI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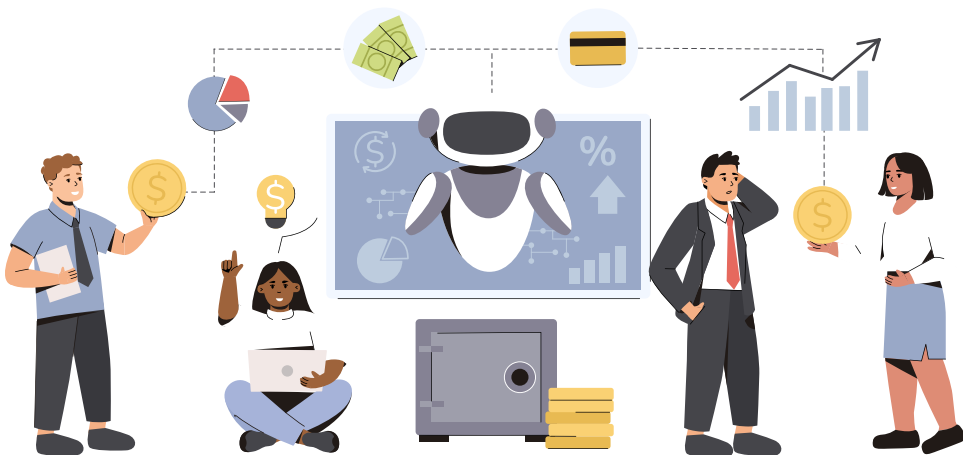
생성형시 도입/활용에 있어서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직원 개개인이 생성형시 프로그램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기술을 완전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직원들이 생성형시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생성형시의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직원들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미나와 쇼케이스를 자주 개최해 생성형시 활용 예제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3 데이터 인프라 및 거버넌스 확립

생성형시 도입/활용 전략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인프라가 수반되어야 한다. 생성형시가 신속하게 도입되고 대중화되는 데에는 오픈 소스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시를 활용해 차별화된 데이터 분석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전통적인 정형 데이터(스프레드 시트 데이터 등) 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이메일, 비디오 자료, 음성 녹음 파일 등) 수집 및 분석 역량도 제고해야 한다. 비정형 데이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해 냄으로써 생성형시의 활용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활용가치에도 불구하고 생성형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가 상존한다. 민감 정보 오/남용, 악의적 콘텐츠 생성, 저작권 침해 등이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다. 기업들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리스크들을 선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경쟁우위를 높일 수 있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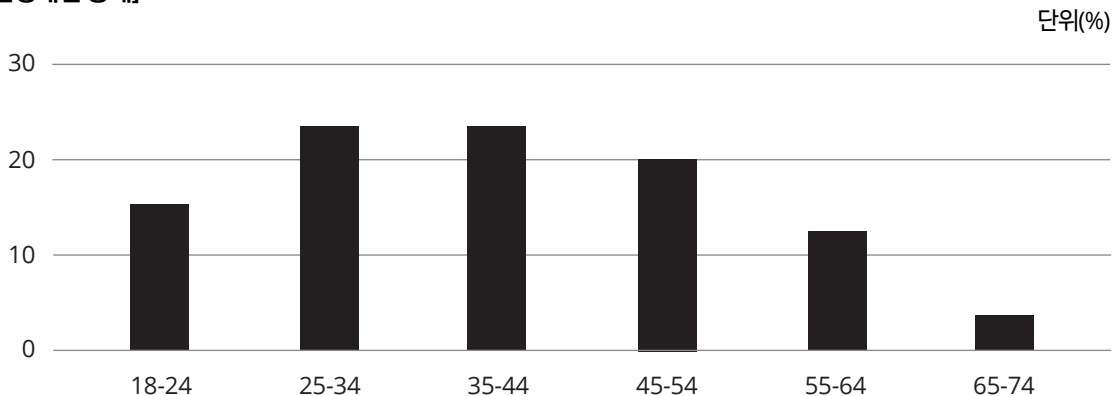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표본 분포

2024년 2~3월에, 호주, 중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 국가에서 2,903명의 대학생과 9,042명의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국가별 통계]

국가	학생(명)	직원(명)
호주	267	1,005
중국	311	1,001
인도	596	1,002
일본	326	1,000
싱가포르	317	1,007
대만	304	1,003
한국	300	1,009
뉴질랜드	209	1,004
인도네시아	55	205
말레이시아	55	200
필리핀	60	204
태국	50	202
베트남	53	200
총합	2,903	9,042

[연령대별 통계]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연구원

양원석 Senior Consultant
wonsukyung@deloitte.com

디자이너

박주리 Consultant
joori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